

# COME & SEE

##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성도여 다 함께(찬/새29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병인 장로 2부/김병찬 장로 3부/김응진 집사 4부/전하은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조성은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누가복음(Luke) 17:11-19..... Altogether **다같이**  
4부/누가복음(Luke) 12:13-21
-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Come & See 미라클(10)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4부..... Rev. Byungjoo Gong **공병주 목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울어도 못하네(찬343/새544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눈감고 설교 듣는 분들에게

To Those Who Listen to Sermon with Their Eyes Close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지난 주는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의 모교인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말이 학생이지, 지금 대부분 담임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나름 풍부한 목회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지만, 목회를 알아서 했다가 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목회였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몸이 부서져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후배 목회자들과 소위 '목회'를 논하면서 저도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조금 먼저 목회를 시작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신나게 목회하도록 노하우가 있다면 전수하고픈 마음 뿐입니다.

얼마전 ABC World News Tonight에서 Anthropic CEO 다리오 아마데이가 나와 인터뷰하면서 시가 가진 잠재적 악한 영향 때문에 AI 개발자들이 속도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가능하면 정부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재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를 선점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긴장감에 모두들 시를 실용화하고, 심지어 설교와 성경공부까지도 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목회 세미나마다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시대에, AI 사용규제를 AI 회사 CEO가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뒷얘기가 있다고 짐작해 봅니다. 저희 모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설교나 논문 작성에 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에 시를 활용하는 세미나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평생 설교 준비하던 방법을 버리고, 은퇴 말년에 시를 사용하기가 어색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설교문을 시가 작성해 준다 해도, 결국 전달하는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한 말씀이 듣는 자의 심령에 심겨지는 것은 설교원고의 글자들이 아니라, 설교자의 억양, 말의 톤과 얼굴 표정과 손동작 등 엄청난 영적인 교감과 신비한 성령의 역사 속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설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설교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듯이, 완벽한 설교원고가 사람을 바꾸는 설교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오늘도 설교 시간에 냉탕 온탕이 갈리고, 은혜의 아멘과 눈감고 팔짱 끼는 것이 갈립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말씀 듣는 귀가 닫힌 자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며, AI가 담임목사인 교회로 옮겨야 할지 모릅니다.

Last week, I visited my alma mater,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Philadelphia, to teach a course titled <Christ-Centered Preaching in Hebrews> to students in the Doctor of Ministry program. Although they are called students, most of them are currently serving as senior pastors, and many possess quite rich pastoral experience. Even though I have been in ministry for nearly 40 years, rather than doing it because I fully understood it, it often felt like putting out urgent fires right in front of me. Looking back, I think I simply poured my heart and soul into it out of a pure love for the church. When discussing 'ministry' with these younger pastors, saying that I still don't really know what ministry is makes me feel so irresponsible that I even feel a bit apologetic. As a senior who started ministry a bit earlier, my only desire is to pass down whatever know-how I have so that their trial and error can be reduced and able to engage in ministry more joyfully.

Not long ago on ABC World News Tonight, Anthropic CEO Dario Amadei shared in an interview that due to potential negative impacts of AI, he wishes AI developers would slow down. He even suggested that, if possible, governments should step in and create regulations to prevent things from heading in the wrong direction. In an era where everyone is rushing to commercialize AI out of fear that they will lag behind if they don't secure an early advantage—and where methods for utilizing AI in sermon preparation and Bible study have become staple topics at every ministry seminar—seeing the CEO of an AI company personally call for regulations makes me suspect there may be serious hidden concerns we are unaware of. My alma mater,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bans the use of AI for sermon preparation and thesis writing. While I have attended a seminar on utilizing AI for sermon prep, I am not hesitant to use AI in the cusp of my retirement simply because I cannot discard the way I have prepared sermons my entire life. No matter how wonderful a sermon manuscript AI can generate, the person ultimately delivering it is the preacher. What is planted in the hearts of those who hear the Word is not the literal text on the manuscript, but rather the preacher's intonation, tone of voice, facial expressions, and hand gestures. Because this happens through profound spiritual communion and the mysterious work of the Holy Spirit, I believe there is a realm that AI can never replicate. Just as earning a doctorate in homiletics does not guarantee that one will preach well, a perfect sermon manuscript does not guarantee a life-transforming sermon. I know this to be true. Even today, during the sermon, the atmosphere splits between hot and cold—between those responding with an "Amen" of grace and those sitting with their eyes closed and arms crossed. There are many elements to a worship service, but if I had to choose one of the most important, it is undeniably the sermon where we listen to the Word of God. No matter how much effort you pour into everything else, if your ears are closed to hearing the Word, whatever the reason may be, it will not hold weight before God. If that is the case, you might as well move to a church where an AI is the senior pastor.

주일 설교 시리즈

COME & SEE

# 미라클 (10)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눅 17:11-19)

1.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이처럼 차별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2. 나병환자를 고치는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에서 나온 것을 입증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했나요?(14절, 참고/ 눅 5:12-14, 레 14:4-20)
  
3. 고침 받은 10명의 나병환자 중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름 느낌을 말해 보십시오. (참고/ 눅 7:41-43, 눅 18:13-14)
  
4. 레 14:4-20에 나오는 나병환자 정결예식 순서에서 아래 성경구절을 실감하는 부분은 어떤 순서였을까요?
  - 시 103:12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5. 아래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아홉 명은 ( )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 )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 ) 시키기 위해 오신분이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 ) 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는 것은 (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는 것은 ( )입니다.



믿음의 고백  
B+B

# 큰 은혜의 통로



누군가가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늘 소설이나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태어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딸 설이를 떠나보내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응급실로 향하던 차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아닌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라는 질문만 반복하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설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태어나기 전 베이비 샤워의 축복을 받았고, 양가 조부모님들과 귀한 시간을 보냈으며, 교회와 목장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늘 웃어주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나누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설이와의 이별은 저

희 가족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울어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며,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위로가 없었다면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4개월 동안 참여한 Beyond the Blue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왜'라는 질문에 갇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Beyond the Blue를 통해 저는 슬픔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슬픔을 품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를 붙들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않지

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주셨듯 앞으로도 붙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바비큐 파티까지 저는 정말 반기만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사랑입니다.

이제는 저 또한 더 단단해져서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함께 걸어주신 전도사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인선 집사



사역 간증  
식당

# 사랑이 흘러넘치는 베델식당사역 2026

2026년도가 시작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베델의 주방은 불이 켜지고, 맛있는 군고구마 냄새와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매주마다 한 줄 한 줄 시금치, 당근, 어묵 재료 손질부터 마무리까지 김밥팀장님 지휘 아래 우리 권사님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베델 최강의 베델김밥! 토요일 프랩부터 다소 무리한 메뉴 선정에도 '네! 셰프님!'을 외치며 순종하며 준비해 주시고, 은혜로운 문구의 메뉴판과 생생한 음식 사진을 담아 매주 수고해 주시는 우리 예쁜 식사팀 권사님들! 힘든 일, 무거운 냄비 설거지까지 척척해 주시는 안수집사님들, 선배 권사님들까지 매주 감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단톡방에 매주 큐티를 올리며 말씀에 은혜받고,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해 주시고,

기도부장 권사님, 재정담당 권사님,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밸런스를 맞추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끓여 주시던 된장찌개 같다'고, '황태국 마시고 감기가 푹 떨어졌다'고, 주방 안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인사해 주시는 각 팀 봉사자들의 격려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베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토요일 프랩부터 이 장로님 기도로 모든 일정이 시작되고, 주방 불이 꺼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천사표 과 권사님, 이름도 없이 오셔서 굿은일마다 맡고 봉사해 주시는 집사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6년, 귀한 베델교회 식당 사역에 동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잘 섬기게 건강과 지혜를 주세요. 정성과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어 내고, 따뜻한 밥을 같이 먹고 나누며,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구원되고 회복되는 베델교회 되게 기도합니다. 우리 식당팀 한 분 한 분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김혜준 권사



사역 후기  
MIT

#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는 공동체

작년 말 신임 장로로 선출되고 신임 임직자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담임목사님으로부터 받게 될 2026년 사역 배정 발표를 기다렸을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MIT 시니어 사역을 배정받았음을 알았을 때 솔직한 저의 느낌은 '어떻게 하지?'라는 긴장과 초조함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고생문이 열렸다'라고 하며 걱정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런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선배 전임 장로님들을 통해 사역의 방법을 듣게 하시고 여러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MIT 사역이 만 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간섭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개의 클래스를 은혜롭게 꾸미게

하시고, 부역 사역을 섬겨 주실 신실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설거지와 이모저모로 도와주시며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채플, 식당, 교실 등에서 지혜와 재능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환상적인 사역팀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MIT 사역을 통해 가장 보람 있는 것은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 함께 사역하며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한마음으로 동역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세워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주 180명분의 점심을 정성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일이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힘들지만,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면서, 또 MIT 어르신들과 교회 사역자분들이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봄학기를 마치고 가을학기를 준비합니다. 금년 봄학기에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을학기에 더욱 접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MIT 사역에 헌신해 주신 여러 동역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훈 장로



사역 간증  
베델동산

# 천국의 예고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1, 9) 참가자로 베델동산을 찾았던 2년 전, 저는 왜 제가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왜 나를 위한 것인지 온전히 납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죄인 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과분하게 받는 사랑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사자로 다시 찾은 베델동산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천국의 예고편에 흠뻑 취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올라온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보며 흘리셨던 눈물이 제 눈에서도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듯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는 권사님들의 손길에서, 흐느끼는 참가자를 말없이 위로하던 봉사자의 배려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입술에서 저는 베델동산 곳곳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가득 찬 공기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듯이, 하나님은 그토록 아름다운 형상으로 스쳐 지나가시며 공기처럼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사실 2년 전 참가자로 베델동산에 왔을 때와 지금 제 삶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고된 순간에도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을 마음 다해 섬기며 그들의 아픔이 제 마음을 찌를 때, 역설적이게도 제 안의 사랑과 감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평안과 사랑이 단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영원한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언젠가 육체와 삶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누린 사랑과 평안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결핍과 욕심보다 사랑과 평안이 더 선명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찰나가 천국의 한 조각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베델동산처럼.

여준호 집사

교회학교

POP 학부모 세미나

# 왕의 자녀를 세우는 부모의 자리



양육반에서 '다음세대에 대한 소명'을 공부할 때, 멘토님이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를 통해 아이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떠올라 이번에 이진아 전도사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성교육 이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르치고, 4세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알아가며, 또한 가족이 예수님 다음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미나가 단순히 나중에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공부라 아니라,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함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디어와 세상의 풍조가 알려 주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아셨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런 생명 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다음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왕의 자녀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Jinhee Barragato

7살과 3살 된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학부모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망설였지만 아내와 상의 후 이틀 간의 교육을 함께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들이 어릴 때 세미나를 듣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에 기반한 세미나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가득했고, 실제 경험에서 나온 예시들은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과 바운더리'를 통해 가정에서 성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4살부터도 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둘째 날 '미디어와의 전쟁'에서는 휴대폰 사용 지도와 부적절한 미디어 노출 시 대처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모가 가정에서 먼저 본이 되어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유익한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베델교회와 이진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Micah Baek

성례  
유아세례

## 은혜로 받은 자녀



3년 전 베델교회로 오게 된 후 두 아들의 세례를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 부부가 은혜를 입고, 둘째 아이 시유가 유아세례를 받게 된 것이 큰 은혜인 것을 압니다.

시유를 품었을 때 30주부터 아이의 발달이 멈춰 있고 자라고 있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에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기도를 받으며 시유가 태어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까지도 아픈 곳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베델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가 없었다면 저희 부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그 시기를 감사와 기대감을 가지고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며 살아온 삶을 잊지 않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시유와 저희 가정이 되겠습니다. 시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겨 주신 자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환/장해인 집사



저희 부부에게 사무엘은 결혼 8년 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자 기도의 눈물로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주시리라 막연히 기도하는 긴 기다림 속에서 점점 소망이 희미해지고 마음이 지쳐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관

시술이라는 길을 열어 주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시술의 긴 여정 속에서 두 번의 유산을 겪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제자반과 베델동산 섬김의 자리로 이끄셔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였고,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며 다시 소망을 품게 하였고, 마침내 건강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생명임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우용/조수진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목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 Back to Bethel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올 11월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 주빌리 감사예배와 추수감사절, 그리고 Back to Bethel Night(베델의 자녀들을 다시 초대하는 자리)을 하나의 특별한 자리로 함께 드립니다. 한때 이 교회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따뜻하게 다시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이 귀한 자리를 위해 성도님들께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베델에서 자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교회가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초대의 손길을 직접 전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담이나 강요도 없으니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받으시거나 QR 코드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홍보팀(영상/디자인/소셜미디어), 행사기획팀, 식사준비팀, 그리고 준비 및 정리팀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작은 시간, 한 번의 손길도 귀합니다.

5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 손을 내미셨던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 ▶ 문의: 김인규 장로(Glen Kim) (949)331-8419
- ▶ 신청: 안내 데스크 또는 QR 코드



###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7월)	6/21:	①부-김정윤	②부-김세진	③부-김인규	④부-안지우
	6/28:	①부-김인권	②부-김정태	③부-김원용	④부-이민수
	7/5:	①부-다무라고조	②부-김태원	③부-김종곤	④부-임지은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6,7월)	6/20:	오성남	6/27: 이노아	7/4: 윤성식	7/11: 이배운
	강단꽃(6,7월)	6/14: 장다혜	6/21: 이지애	6/28: 선상균, 조 궁	7/5: 미정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지수(치과), 간호사-박수잔      다음주 | 의사-서수지(피부과), 간호사-오선희

###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색(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김예평(김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밭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제 13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5년 베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6월 1일(월)부터 교회 홈페이지나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방법: 6월 1일(월)-30일(화), 장학생 모집 홈페이지(scholarship.bkc.org)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scholarship@bkc.org,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Promise of Purity 예비 등록 우리 자녀들은 비성경적인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가정과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POP를 통해 자녀들과 부모님이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결의 아름다움을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대상/예비 등록 기간: 현재 4-6학년, 5월 31일(주일)-6월 30일(화) 등록/문의: QR 코드, 위우정 집사 (714)423-4813

◆ 2026 GMMA 컨퍼런스 GMMA 컨퍼런스에 있는 저녁 집회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주강사로 프랭클린 그레함, Dr. Ming Wang(영화 "Sight"의 실제 주인공) 외 3명과 함께 합니다.

일시/장소: 6월 26일(금), 27일(토) 저녁 7시 30분, 본당 강사: Dr. Peter Chung Sr.(President, GMMA), Franklin Graham(CEO Samaritan's Purse) 봉사자 모임 일시/장소: 6월 18일, 25일 목요일 저녁 7시, 유년부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www.gmma7.org

◆ 제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를 주제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편 36:9)라는 말씀 아래 제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통찰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알찬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특별순서, 맛있는 식사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와 배움이 가득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 7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8월 1일(토) 오전 6시, 8월 2일(주일) 1-3부 예배

◆ B2N 2027 연합기도회 초대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깃든 튀르키예에서 Blessings to Nations(B2N) 2027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일시/장소: 2027년 4월 22일(목)-26일(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등록비: 1인당 \$1,000 + 국제선 항공권 or 여행패키지 등록비 포함 항목: B2N 일경 간 호텔 숙박비, 공항-호텔 이동, 호텔-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이동,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입장료(불포함: 국제선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필요시), 기타 개인 경비 등) 문의: 코트야드 부스, 이종경 목사 (949)537-6968, 황세헌 장로 (949)648-1907

◆ 초등부 여름 수련회 등록 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Identity: In Christ'라는 주제로 7월 31일(금)-8월 1일(토)에 열립니다. 등록은 QR 코드나 PTA 카톡으로 나간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등록비등록/문의: 현재 4-5학년, \$120, QR 코드, 김정범 집사 (714)623-0919

◆ CIM 한어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CONFIDENCE'라는 주제로 열리는 수련회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8월 6일(목)-9일(주일), Anchor Retreat Center 등록: QR 코드 및 CIM 단체 카톡방 구글폼 링크 회비: (초기 등록) 6월 14일까지 \$200, (일반 등록) 6월 15일-28일 \$220 문의: 이준혁 집사 (562)400-4181, 이성우 목사 (818)294-8535

◆ BYM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BYM 중등부는 'Messiah'라는 주제로, 고등부는 'Blueprint of Life'라는 주제로 8월 3일(월)-6일(목)에 각각 열립니다. 등록은 QR 코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중등부 장소: Angeles Crest Christian Camp 중등부 문의: Albert Choi 집사 (714)398-3914 고등부 장소: Palomar Christian Conf. Center 고등부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등록비: 5월 31일(주일)-6월 14일(주일) \$200(Early bird registration) 6월 15일(월)-28일(주일) \$220(Regular registration)

◆ BYM Qara(영어 중등부) 찬양팀 오디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예배를 섬기고 싶은 6-7학년 학생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보컬,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현악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찬양과 예배를 사랑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YM 8학년 졸업 뱅킷 고등부 진급을 앞둔 BYM Qara(영어 중등부) 8학년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졸업 기념 친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해변에서 함께 즐겁게 지내며 중등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7월 6일(월) 오후 3시-9시, Corona Del Mar State Beach(집합 및 귀가 장소) 참가비/등록/문의: \$20(6월 14일까지 제출), QR 코드, 최호경 집사 (714)398-3914

◆ 기도해주세요 예산과 CIM 뉴멕시코 단기선교가 6월 14일(주일)-20일(토)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 파송합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WANA(어와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li><li>- Truth&amp;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li></ul></li><li>■ 중,고등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li><li>-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li></ul></li><li>■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li><li>■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li><li>■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li><li>■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li><li>■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li><li>■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li><li>■ 편집장: 김경자 권사</li><li>■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li><li>■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li><li>■ 번역: Grace Yi 전도사</li></ul>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